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 '낙상'

최근 4년간 고령자 안전사고 2만3561건 낙상사고 비중 63% 달해... "뇌진탕 주의"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는 2만3561건이

다. 이 가운데 낙상사고는 1만4778건(62.7%)으로 가장 많았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1만2015건(81.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75~79세(3248건), 80~84세(3223건), 70~74세(2703건) 순으로 많았다.

이런 사고는 뇌진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낙상사고로 인해 다치는 부위를 분석한 결과 '머리 및 뇌(뇌막)'가 30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리(무릎 위) 2425건, 둔부 1675건, 허리 1145건, 흉부 80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낙상사고의 대부분은 주택(1만1055건, 74.0%)에서 발생했다. 특히,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농촌의 경우 경운기와 사다리에서

낙상사고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 결과에 따른 경운기 관련 사고는 전체 농업기계 관련 손상사고의 35.0%를 차지했다. 사다리 관련 사고는 전체 농기구 관련 손상사고의 51.9%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 농진청과 고령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앞으로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환기자



담양소방, 추석 전 전통시장 화재 저감 예방활동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담양, 곡성군 소재 전통시장 6곳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진도소방, 추석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지도 방문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29일 추석 연휴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위해 관내에 위치한 진도상설시장, 진도터미널(인근 상가) 등 취약 대상처를 방문해 행정지도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광양소방,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26일, 동문건설 광양 와우지구 시블록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광주 동부소방, 뮤직페스티벌 안전체험부스 소방시설 설치 홍보

광주 동부소방서는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안전체험부스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캠페인을 지난 26일 실시했다.

이슬비기자



여수경찰, 학교폭력 예방 등갓길 캠페인-특별예방활동 기간 운영

여수경찰(서장 정성록)은 여수구봉중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학교폭력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등갓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완도해경, 방향상실 어선 안전관리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지난 27일, 전남 완도군 조약도 인근해상을 순찰중이던 경비함정이 방향상실한 어선을 발견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도록 안전관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유치원 특별감사 불복 소송 패소' 광주교육청 5억9000만원 반환

소송 불참 74개 유치원도 반환 움직임...25억원 규모

광주시교육청이 8개 사립유치원이 제기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회수한 학급운영비보조금 등 5억9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74개 유치원도 소송 결과를 토대로 줄줄이 반환요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이 광주지역 8개 사립유치원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 소송'에서 최종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회수한 학급

운영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5억90064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2019년 부터 진행된 소송에서 1심은 시교육청 승소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이 패소 판결해 시교육청은 8개 유치원으로부터 회수한 학급운영비보조금 4억85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금액은 유치원에 따라 8500여만원부터 3500만원 정도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시교육청은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일부와 회수기간 이자 등까지 포함해 2억여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시 감사를 통해 소송 참여 유치원 포함 총 82개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운영비보조금 25억50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줄소송도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019년 12월까지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였다. 82개 유치원이 적발돼 시교육청은 운영비 보조금 회수 조치했으며 이 중 8개 유치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74개 유치원도 회수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예상돼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정다운 의원은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대법원 패소로 인해 시교육청은 회수했던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74개 유치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진행하면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연 이자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소송 제기 전에 반환 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적극행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등 관련부서에 적극행정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반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기동취재본부

전남 공무원노조 "내년 임금인상, 물가 상승률 반영해야" 촉구

내년 공무원 보수예산 재심의 강력 촉구

전남 공무원노조가 내년 공무원 임금 1% 대 인상으로 사실상 동결 방침을 내놓는데 정부에 대해 보수 예산 재심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남지역본부는 30일 전남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신규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인 199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이 1.9%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3.9%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사실상 공무원보수를 실질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점입가경으로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5%, 올해 물가상승률은 7%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 남짓"이라며 "결국 내년도 물가 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보수를 받으며 강도 높은 노동을 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오랜 수험생활 끝에 공직사회에 들어왔지만,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정작 취업준비생 시절 받던 아르바이트 시급보다도 낮은 현실"이라고 한 상황을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재벌 규제완화 등 부자들에게는 온갖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무원 임금의 실질적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처우개

선 방안 마련,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서선욱기자



정부 대책 항의 버려지는 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민단체가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를 마치고 정부 대책에 항의하며 쌀을 버리고 있다.

태풍 '힌남노' 서진...3일 전후 제주도·남해안 강수 영향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서진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no)가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오는 주말인 3일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를 뿌릴 전망이다. 이관영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30일 수시 예보 브리핑에서 "힌남노는 31일~2일께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때 우리나라의 경우, 태풍의 흐름에 따라 유입된 고온다습공기와 북쪽 고기압 가장자리의 차고 건조한 공기 만나면서 오는 3일 제주도, 남해안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고 예보했다. 힌남노의 이동경로와 강도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우리나라는 태풍의 흐름에 따른 기압계 변동으로 강수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힌남노는 오전 9시 기준 오키나와

동쪽 약 930km에서 시속 32km로 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45hPa, 강풍반경은 300km이다. 중심최대풍속은 초속 45m로 '매우강' 단계의 태풍에 속한다. '매우강' 단계는 사람과 커다란 돌이 날아가는 정도의 강도를 나타낸다. 힌남노는 이날 새벽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발달했다. 힌남노가 지나는 해수면 온도가 30도 내외로 높고, 대기상하층간의 바람 차이가 작은 점 등이 빠른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힌남노는 바다로부터 다량의 수증기와 열을 공급받으면서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키나와 부근에서 속도가 느려지면서 정체하는 31일부터 2일께 열대요란을 병합하면서 강도와 크기가 증가할 전망이다. 뉴스